

— Sat-165 —

후천성면역결핍증 환자에서 발생한 비호즈킨성 림프종의 임상양상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 교실

설혜령*, 김병수, 성화정, 최중권, 박경화, 윤소영, 최인근, 오상철, 서재홍, 최철원, 김병수, 신상원, 김열홍, 김준식

배경: AIDS환자의 3%에서는 비호즈킨성 림프종 발병으로 AIDS로 진단되며, HIV 감염환자에서 림프종외에 AIDS진단에 부합되는 다른 증상을 보이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림프종 발생 위험률은 650배 높고, 전체 AIDS환자의 15%는 림프종으로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highly active antiretroviral therapy(HAART)의 도입으로 AIDS 환자의 생존률은 향상을 보이고 있으나 AIDS와 연관된 림프종의 발생률은 큰 변화가 없다. AIDS에 연관된 림프종은 대부분이 고분화도를 보이는 B세포 림프종이며 전신의 모든 부위를 침범해 심낭, 림프관, 담낭, 직장, 잇몸 등에서 발생하기도 하고 진단시 이미 60-90%에서 중추신경, 위장관, 골수 및 간등의 extranodal site로 진행되어 있다. 본 저자들은 AIDS환자에서 비전형적인 증상으로 내원해 비호즈킨성 림프종으로 진단한 2례를 경험하였기에 이에 보고하는 바이다.

증례1: 40세 남자로 2년전 우연히 HIV감염 확인한 후 보건소에서 경과 관찰하던 중 2개월간 지속된 연하통을 주소로 입원하였다. 당시 CD4 cell count는 2/uL에, CMV antigenemia보였으며 위내시경에서 문치에서 20-30cm위치에 궤양을 동반한 식도종양을 확인하였다. 조직검사상 미만성대B세포림프종(diffuse large B cell), Ann Arbor stage IIIB로 진단하여, 현재 HAART중이고 향후 항암화학요법 고려중인 상태이다.

증례2: 48세 남자로 1년전 폐성과 호흡곤란을 주소로 내원 후 성대에 궤양을 동반한 종양 관찰되어 조직검사와 혈액검사후 HIV antibody assay양성, HIV RNA 18,000 copies/mL, CD4 cell count 187/uL개 보이고 결핵성 흉막염 소견으로 AIDS 진단하였고 HAART와 항결핵약 복용시작하였다. 성대조직검사서 미만성대B세포림프종을 확인하였고 stage IIIB로 진단후 CEOP-B regimen으로 총 6차례항암화학요법 마친 후 완전관해 상태로 현재 외래에서 경과관찰중이다.

— Sat-166 —

Rituximab으로 치료한 신이식 환자에서 발생한 이식후 림프구 증식성 질환 1예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 교실, 병리학교실**

박의순*, 오호석, 최정혜, 이영열, 김인순, 최일영, 강종명, 박찬금**, 안명주

=Abstract=

Posttransplantation lymphoproliferative diseases (PTLD) are among the most serious and potentially fatal complications of chronic immunosuppression in organ transplant recipient and also the most common malignancies, accounting for 21 percent of all malignancies in organ transplants versus 5 percent of malignancies in the general population. PTLD is associated with immunosuppression and Epstein Barr virus (EBV). Treatment modality of PTLD includes antiviral agent, interferon α , intensive chemotherapy and monoclonal antibody. Choice of treatment modality depends on clinical presentation of PTLD. We report here a case of PTLD involving liver and renal allograft treated with Rituximab.